

“사람 중심 ‘진짜경제’ 만들겠다”

(4면서 계속)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기업인 출신인데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 후보가 추구하는 경제는 토목과 건설, 대기업중심의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80년대형 가짜경제다. 그 이면에는 부패와 비리라는 검은 그림자가 있다. 나는 성장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진짜경제’를 만들고자 한다.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다.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는 대기업위주의 성장은 일반 국민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 후보의 또 다른 위험성은 국민 81%가 반대하는 운하 건설 고집에서 보여준 독선, 여성과 종교 발언에서 보여준 불안정성, 본인과 주변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으로 집약된다. 개인적으로도 실패한 기업가다. 그가 경영했던 현대건설은 부도가 났고, 그가 만든 개인 회사는 파산했다. 나는 우리 나라에선 가장 성공한 전문 경영인이다. 또 글로벌 리더들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다. 미국 대통령을 배알하려다 국제적 망신을 사는 그런 인물과는 다르다.

—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운하 건설 공약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나라에 대해앙을 가져올 환경과 건설이 될 것이다. 독선적인 지도자일수록 건물 짓기, 다리 놓기를 좋아했다. 진시황이 그러했고 수양제가 운하를 만들고 고구려를 쳐다라 국력을 소진해 나라를 망쳐 먹었다. 이 후보의 머릿속에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는 없는 것 같다. 시멘트와 볼드체의 80년대 토건 경제만 있는 것이다.

— 호남 발전을 위한 구상은.

▲‘호남재창조위원회’를 만들어 획기적 발전을 이끌겠다. 과거식으로 하지 않겠다. 사람, 교육, 연구 중심으로 발전을 이끌면 행정도 옮겨온다. 또 세계와 연계 속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

— 광주·전남 발전 공약을 후보마다 조금씩 내놓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법은 없는지.

▲광주를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교통망을 확보하여 확보 아시아 최고 광산업 집적지로 육성할 것이다. 또한 광주의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공간을 확장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전남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동북아 불류·교육·관광의 중심지로 키워가겠다. 광양항을 불류유통뿐만 아



‘한반도 운하’ 대재앙 가져올 환경 파괴 될 것 국민에 감동줄 수 없는 후보 단일화는 안돼

나라 무역·마케팅 기능을 갖춘 종합 물류항으로 확대 개발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중국 및 유럽으로의 육송화물을 중계·환적하는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조성하겠다.

또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다. 유치 후에는 부지 조성, 박람회장 건설 및 기간도로망 확충 등을 위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개최지 여수가 해양리조트타운, 해양테크노파크, 컨벤션센터, 마리나 리조트를 포함하는 미래형 해양도시로 발전되도록 할 것이다.

—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단일화 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치나 비전에 대한 일치 없이 단순히 정치 공학적으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단일화 논쟁 전에 국민 마음 사는 것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문제점을)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책임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황태자라는 모후보(정동영 후보를 지칭)는 여당의 당의장을 두 번이나 했다. 그러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국민 앞에 이직적이고 사과해야 한다. 이것 없이 단일화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정치의 불치병인 부정부패·비리에 물든 세력을 척결하고, 무능·무책임한 정치문화를 쓸어버릴 세력의 승리를 위한 단일화,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 일부에서는 문국현 신당을 ‘도박’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우리 창조한국당은 기존정당의 부패·비리, 무능·무책임을 극복하고 창조적 나라를 이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 똘똘 뭉친 것이다. 내가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정체성과 정치의 가치 비전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손쉽게 손잡고 함께 할 수 있겠는가.

— 지지를 상승이 기대에 못미친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면 늦어도 매우 늦게 출발했지만 빠른 속도로 기존 정당 후보들을 앞지르고 빠르게 지지율을 높여 가고 있다.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데 4, 5위 후보들보다 많이 앞서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창조한국당 시·도당을 창당하고 있는 데 어디를 가든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 힘을 얻고 있다. 인지도가 22%일 때 지지율이 7~8%였으므로 인지도만 높이면 지지율은 급속히 올라갈 것이라 확신한다.

— 광주·전남 유권자에게 한 마디 한마디.

▲광주정신은 민주화의 선봉이 됐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화만 됐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민주화, 즉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소,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이루려는 재창조를 해야 한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인터뷰 분위기는

이명박후보와 차별 강조 손동작 하나까지 활력

문국현 후보는 인터뷰 내내 주로 자신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교하며 자신의 도덕적·정책적 우위를 강조했다.

감색 콧수염 양복을 입은 문 후보의 말투는 시종 자신감이 넘쳤고 한국의 비전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손 동작 하나까지 활력이 넘쳤다.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 앞서 2시간여 동안 금융산업노조 간부들과 초청간담회를 가졌는데 피로감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

문 후보는 인터뷰 중간 중간이 자신에게 인색한 일부 공중과 방송에 서운함을 표시했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와 비슷한 대립점 해준다면 지지를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항응 파문, 풀어야 할 의문들

성 접대? 술자리 주체는?

정치권 안팎 상반된 주장 ‘진실게임’ 검찰로 갈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들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항응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흘러나오면서 ‘진실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성 접대 있었나= 특정 언론에서 제기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임인배, 김태환, 류근찬 의원은 강력한 부인과 함께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국회의원들이 술을 마신 대전 유성의 N주점 업주 J(36)씨 역시 “아가씨는 부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은 27일 보도를 통해 “지금은 말을 바꾼 A주점 업주 Y(49.여)씨로부터 ‘22일 국회의원 6~7명과 연구단지 관계자 등 10명이 찾아와 양주 6~7병을 마신 뒤 의원 2명이 모델로 2차를 갔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들었고, 남자중임원도 인상착의까지 설명하면서 ‘의원이라고 하는 2명을 직접 모델까지 데려다 줬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 접대를 받은 장본인이 의원이 아니라면 수행원, 혹은 피감기관 관계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술자리 주체는=임 의원은 N주점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저녁식사를 마친 뒤 김태환, 류근찬 의원이 ‘우리끼리 한잔 하자’고 해 바로 옆 술집에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자리에 피감기관장들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식사를 한 S한정식집과 N주점은 도로를 따라 800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임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N주점까지 가려면 도중에 다른 많은 주점들을 모두 지나쳐야 하며 그곳은 술값을 다음날(오후 9시 9분 42초) 결제해도 될 정도로 피감기관 직원과 마담 사이에 친분이 있는 곳이다.

또한, 피감기관에서 술값을 결제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우리끼리 한 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 여부= 국회 과거정위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 수사를 맡게 되는 대전지검은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 지검 관계자는 “성매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 수사 의뢰가 접수되지 않았고 시민단체 등의 고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아직 검찰이 나설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 의뢰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날 항응의 진실은 어느 정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투숙했던 R호텔의 폐쇄회로 TV를 확인하면 실제 의원들이 호텔에 들어간 시각을 알 수 있을 때문이다. 여기에 이날 술자리에 참석했던 피감기관장들을 소환하고 술집 업주들을 조사한다면 항응의 실체를 밝히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항응은 의원·기관장이, 술값은 말단직원이

‘항응은 의원·기관장이 실컷 즐기고 술값 부담은 결국 말단 직원(?)’에 대한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단란주점에서 먹은 68만원의 술값을 피감기관 소속 말단 직원이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2일 국감이 끝난 뒤 주점에서 인색한 일부 공중과 방송에 서운함을 표시했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와 비슷한 대립점 해준다면 지지를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감기관 가운데 한 곳인 생명공학연구원의 기획예산 부서 겸 직원인 이모씨가 개인카드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개인카드로 계산된 영수증은 피감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산출하는 국감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법인 카드로 계산된 720여만원의 1차 저녁식사비와 달리 개인카드로 계산된 술값 영수증은 나중에 여러 수감기관이 나눠서 정산을 하는 공식 국감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이용가능성으로 대산프리모 남녀기발

가발 확장 이전 세일 30%

이름사 개인지도 10.1~10.31까지

0.03mm 초슬립!!

귀여운 토틀링 안경을 놓여주는 생활용 렌즈가 되겠습니다

문의: 011-604-8000

무중상 자석의 차별화형

高品質 장풍인본서전문점 유전

정신약선	카네이션 꽃다발	120,000
	장미 꽃다발	180,000
	수선화 꽃다발	180,000
	대단정(대단정) 꽃다발	240,000
	유전 꽃다발	240,000
	무중상(무중상) 꽃다발	270,000